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송 수 민†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심리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이질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건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에 따라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및 고등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 과일반화, 사회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죄책감경향성은 반성적 반응양식과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수치심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반추적 반응양식이,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반성적 반응양식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부초점적 반응양식(반추적, 반성적 반응양식)이 하나의 매개변인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죄책감경향성이 높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건 경험을 하더라도 정서적 반응을 덜 경험하며, 인지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상담 장면에서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내담자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상담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 내부초점적 반응양식(반추적, 반성적 반응양식), 적응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발췌한 것임.

† 교신저자 : 송수민,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el : 02) 2250-3082, E-mail : soomin68@empal.com

인간이 경험하는 이차정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까지도 필요로 하는 정서이다. 이는 내가 혹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standard)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갖게 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Lewis, 2003),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차정서보다 늦게 나타나고 좀 더 복잡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한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이차정서 중 수치심(shame)과 죄책감(guilt)은 대표적인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서 (Lewis, 1992; Tangney & Fischer, 1995)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한편, 다양한 심리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유경, 민경환, 2002).

사전적 의미로 수치심(shame)은 ‘몹시 부끄러운 마음’을 의미하며, 죄책감(guilt)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의미한다(국립국어 연구원, 1999). 수치심과 죄책감은 서로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부분 중복되고 동시에 활성화된다. 기존 연구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모든 사람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될 만한 핵심적인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루어 간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남기숙, 2002).

수치심과 죄책감은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 도덕적 정서로서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며(Damon, 1988; Eisenberg, 1986; Harris, 1989; Schulman & Mekler, 1985), 다양한 심리학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

재적인 문제를 지닌 정서로 다루어져 왔다(Fossum & Mason, 1986; Potter-Efron, 1989; Rodin, Silberstein, & Striegel-Moore, 1985).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Freud(1905)는 초기 연구에서 수치심은 공개적으로 성적주의를 끌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방어로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무시하고, 전적으로 초자아의 갈등과 관련되는 죄책감을 인지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Piers와 Singer(1953)는 죄책감을 자아와 초자아의 충돌에 대한 반응으로, 수치심은 자아와 이상적 자아간의 충돌로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Lewis(1971)와 Erikson(1950)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때부터 수치심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서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Lewis(1971)는 개인의 인지 양식의 차이가 수치심경향성(shame-proneness)과 죄책감경향성(guilt-proneness)의 차이를 낳는다고 가정하였다.

이제까지 수치심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치심이 임상적 견지에서 부정적 측면과 관련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Harder와 Lewis(1987)는 수치심, 죄책감이 모두 우울, 불안, 적대감,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Tangney와 Dearing(2002)은 자기전체에 초점을 두는 수치심을 내부(internal), 안정적(stable), 그리고 전반적(global) 귀인에서 비롯되는 정서 상태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으며, Janoff-Bulman(1979)은 수치심경향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도 높다고 보고 했다. Tangney 등(2002)은 수치심 경향성과 정신병리 지표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류설영(1998)

은 수치심이 분노, 우울 그리고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Lewis (1971, 1987)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리내적인 기제로 구분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자기(self) 분화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수치심의 경우 전반적인 자기(global self)에, 죄책감의 경우 특정 행동(specific behavior)에 맞추어 진다. 따라서 고통의 수준에서 보면, 수치심이 죄책감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고된다. 현상적 경험으로의 차이를 본다면, 수치심의 경우는 위축되고 작아지는 듯한 느낌,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느낌, 힘을 모두 잃은 듯한 느낌을 경험하고, 죄책감의 경우는 긴장과 애도 그리고 후회를 경험한다.

Tangney와 동료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들이 개발한 도구인 TOSCA를 이용해서 중단 연구를 진행해 왔고, 아동과 청소년을 8년간 중단연구를 하면서 수치심과 죄책감경향성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상당히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Tangney & Dearing, 2002). Tangney등(2002)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부적응들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수치심은 알코올 중독(Cook, 1991; Merritt, 1997), 우울증(Alexander, Brewin, Vearnals, Wolff, & Leff, 1999; Hoblitzelle, 1982, 1987), 자살(Lester, 1998), 섭식장애(Sanf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나르시즘(Morrison, 1989), 학대(Andrews & Hunter, 1997), 애착(Cook, 1991)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결혼만족

도(Blavier & Glenn, 1995), 자아발달(Einstein & Lanning, 1998)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현상에서도 수치심 변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류설영(1998)이 수치심이 분노, 우울 그리고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서현령(2002)이 수치심, 죄책감과 자기불일치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수치심은 전반적인 자기불일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죄책감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수(2003)는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비하상황에서 자기나 타인을 더 많이 비난하며,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를 사회적 비하상황에서의 자기비난이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신주연(2003)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부모화가 병리적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경향성이 이들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정서적 차원의 경험이 수치심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수치심경향성은 병리적 의존의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혜림(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경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치심이 우울이나 병리적 의존, 사회불안 등 여러 가지 병리적 측면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주요한 변인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능주의적 입장을 지닌 Barrett(1995)는 수치심의 행동적, 사회적, 개인적 기능을 분석하면서,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거나 노출을 피하려는 행동조절 기능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낮추어 의사소통하거나 자신을 반성하여 표준이나 준

거를 강화시키는 자기조절 기능이 있다고 함으로써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김기범과 김양하(2004)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실험연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에 의하면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등 타자와의 역할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역할담당 감정(role-taking emotion)은 개인의 도덕적 규범행위의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성식(1995)은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이 청소년의 비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치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수치심은 자기의 병이자 영혼의 병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Kaufman, 1989). 상담에 오는 내담자 중에도 실패나 과오를 경험한 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건이나 개인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식적 정서의 문제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그동안 심리학적 연구에서 간과되어져 온 경향이 있고, 명확한 개념적 합의 없이 연구가 이루어져 모호성이 있고(Tangney & Dearing, 2002), 측정하는 척도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개인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성향적 특성을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인지적, 동기적, 적응적 측면에서의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반응 양식의 하나의 과정적 변인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담적 접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변인들과의 상관 외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은 주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Lewis(2003)는 부정적 사건의 경험 후 귀인에 따라 정서적 차이를 느끼듯이, 긍정적 사건 귀인에 따라서도 정서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을 갖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귀인을 하고 정서적 반응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 2에서는 문제영역을 확장하여 부정적 사건 뿐 아니라 긍정적 사건 경험 후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에 따라 정서적인 반응과 인지적인 해석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인지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양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Nolen-Hoeksema(1991)는 우울에 대한 반응양식 이론(response style theory)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에 반응하는 일관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

고, 김진영(2000)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중 부정적인 반추적 반응양식과 긍정적인 반응양식인 반성적 반응양식이 존재함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DQ: Responses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를 제작하였다. Nolen-Hoeksema(1991)가 밝힌 반추적 반응양식(ruminative response style)은 의도적인 반응으로 선택되는 사고와 행동이며, 반복적이고, 순환적이고, 부정적이며 긴 연쇄를 이루는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반성적 반응양식은 ‘부정적 감정에 직면하여 우울의 원인과 우울한 기분을 야기하는 기저의 사고 과정을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사고와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반추적, 반성적 반응양식들은, 부정적, 긍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우울과 상이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적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다음으로, 동기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Atkinson(1957)은 동기 성향과 수치심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수치심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McGregor와 Elliot(2005)이 172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수치심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기적 특성이 특정 정서와 관련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성취과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단순하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배우는 기회가 아니다. 이들은 판단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성취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수치스러운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 상황에서 벗어나 있고 자 하며, 이러한 태도가 더 많은 실패와 실수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장과 성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동기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취동기와 사회불안의 관련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는 약자가 이후의 행동 경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고 가정된다(Lewis, 1971, 1987). Lewis(1971, 1987)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시선을 회피하고 신체가 위축되며, 내적으로도 망가거나 숨고 싶은 소망, 땅 밑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소망을 갖거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성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죄책감은 모든 평가가 자기와 다소 거리를 두고 일어나므로 수치심보다는 덜 고통스럽고 덜 파괴적이다. 죄책감은 수치심처럼 숨어 버리고 잘못을 투사하기 보다는 좀 더 타인지향적 행동 경향성을 낳는다. 따라서 잘못된 고백, 사과, 보상과 같은 후속 조치 행동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Tangney 등(1989, 1991, 1992)은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동기적, 적응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개인의 수치심/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개인의 반응양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수치심경향성은 죄책감경향성보다 인지적, 동기적, 적응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수치심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을 통해, 죄책감경향성은 반성적 반응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대학 내 심리학 관련 과목 수강 남, 여 학생(1-4학년)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8명을 제외한 총 254명 (남 116명, 여 13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측정 도구

자의식적 정서 척도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등(2000)에 의해 개발된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 SCA-3)를 사용하였다(Tangney, Dearing, Wagner, & Gramzow, 1989). 이 척도는 정서의 초점이 자기 전체 혹은 행동에 맞추어 지는가에 따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상황이 16개 제시되고 각 시나리오 안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및 죄책감 정도가 심한 것이며, 이러한 양식의 응답을 근거로 개인의 고유한 수치심경향

성과 죄책감경향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반응양식 척도

김진영(2000)이 제작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도구인 RDQ (Reponses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은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 외부초점적 반응양식은 전환적 반응양식으로서 3가지 하위척도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점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반응양식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89, .84, .84이었다.

과일반화 척도

개인의 과일반화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ATS(Attitudes Toward Self Scale)의 과일반화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ATS는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 높은 기준(high standard), 자기비판(self-criticism)의 3가지 하위척도를 내용으로 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문항이 과일반화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Caver와 Ganellen(1983)이 사용했던 것을 최윤정(199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Cronbach α)가 .83이었다.

성취동기 척도

성취동기 측정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성취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창열(1985)이 제작한 성취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형 검사 도구로서 21개 문항으로 되어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어 지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도 .78이었다.

사회불안 척도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를 사용하였다. 이 두 척도는 Watson과 Friends(196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사회불안의 연구와 임상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이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는 이정윤(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각각 28문항과 12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93과 .9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척도

생활의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tryk(1984)이 제작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응과 사회적응 각각의 19항목, 12항목을 사용하였는데, 대학생들의 학업관련 적응도와 사회적응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

α)가 .84였고,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학업적응 .83, 사회적응 .74였다.

결 과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간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상관이 .24 ($p < .01$)로 나타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과의 준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이나 과일반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죄책감경향성은 반성적 반응양식과 대학생활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반추적 반응양식이나 과일반화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죄책감경향성은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수치심경향성은 성취동기와 부적 상관을, 사회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수치심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r = .49, p < .01$), 학교적응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r = -.25, p < .01$). 이

표 1. 수치심/죄책감경향성, 반응양식, 과일반화, 대학생활적응과의 준부분상관 계수(r)

	반응양식			과일반화	성취동기	사회불안	대학생활적응
	반추반응	반성반응	전환반응				
수치심경향성	.48**	-.09	-.07	.49**	-.29*	.39*	-.29**
죄책감경향성	.05	.32**	.10	-.01	.30*	-.03	.17*

* $p < .05$, ** $p < .01$

주. 준부분상관계수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간의 상호상관을 배제한 것임.

는 수치심경향성이 높을수록 반추적 반응양식과 관련이 되고, 적응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수치심경향성이 반추적 반응양식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델 1(1단계)에서 반추적 반응양식을 투입했을 때, 반추적 반응양식에 의해 설명되는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설명력(R^2)은 14%였다($F=42.40$, $df=1/265$, $p<.01$). 다음에 모델 2(2단계)에서 반추적 반응양식에 수치심경향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2개의 예언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대학생활적응의 전체 설명력(R^2)은 1%(R^2 change)증가하여 14%로 거의 동일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수치심경향성이 추가됨으로써 적응의 설명력이 변동이 없는바($F=1.72$, $df=1/265$, $n.s.$)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수치심경향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반추적 반응양식을 통계

적으로 통제하였을 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경향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반추적 반응양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죄책감경향성이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델 1(1단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을 투입했을 때, 반성적 반응양식에 의해 설명되는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설명력(R^2)은 3%였다($F=42.40$, $df=1/265$, $p<.01$). 다음에 모델 2(2단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에 죄책감경향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2개의 예언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대학생활 적응의 전체 설명력(R^2)은 4%로 전체설명력이 1%증가하였다. 죄책감경향성이 추가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의 전체 설명력은 1%증가(R^2 change)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

표 2.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반추적 반응양식과 수치심경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약

	모델	R^2	R^2 변화	F 변화
대학생활	모델1	.14	.14	42.40*
적응	모델2	.14	.01	1.72

* $p < .01$

주. 모델 1: 투입독립변인 = 반추적 반응양식

모델 2: 투입독립변인 = 반추적 반응양식, 수치심경향성

표 3.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반성적 반응양식과 죄책감경향성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요약

	모델	R^2	R^2 변화	F 변화
대학생활	모델1	.03	.03	9.04*
적응	모델2	.04	.01	1.68

* $p < .01$

주. 모델 1: 투입독립변인 = 반성적 반응양식

모델 2: 투입독립변인 = 반성적 반응양식, 죄책감경향성

로 유의하지 않았다($F=1.68, df=1/265, n.s.$). 즉,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반성적 반응양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반추적 반응양식이나 반성적 반응양식이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과 다르게 관련되며, 이러한 과정적 변인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하고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심 경향성을 갖는 개인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자기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추적 반응양식을 가지게 되면 이로 인해 더욱 더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죄책감경향성이 보다 적응적일 수 있는 데에는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 동기화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 가는 형태의 반응양식인 반성적 반응양식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Harder(1995)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모두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수치심을 배제한 죄책감은 타인의 조망수용이나 공감 등 긍정적인 변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죄책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Ferguson과 Crowley(1997)는 죄책감이 적응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더 적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연구는 이제까지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더 부적응적이고 적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교하면서 수치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병리적인 측면인 우울이나 사회불안 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에 제한되어져 온 데 비해, 개인의 반응양식이 또 다른 설명력을 지닌 하나의 변인이 됨을 구체화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상담과정에 적용시켜 본다면, 개인이 지닌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를 다루어 나가는 반응양식을 검토하고 치료적으로 다루어주는 것도 상담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구 2

수치심과 죄책감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로서 부정적인 사건과의 관련성이 다루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반응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Abramson, Alloy와 Metalsky(1978)에 의하면 사람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무기력을 어떤 원인으로 귀인하게 되는데, 이때 우울 유발적인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부정적 사건을 내적(internal), 안정적(stable), 전반적(global)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Harter(1986)는 높

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자신에게 귀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우울을 유발시키는 귀인양식과 수치심경향성을 갖는 개인들의 귀인양식은 유사한 점이 있으며, 높은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귀인양식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기패배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귀인을 하게 되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영호, 1993; 이영호, 원호택, 1990). 심종온과 이영호(2000)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건귀인은 수치심경향성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며,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우울해 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영호(1993)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들은 각 사건마다 다른 귀인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울증에 대한 귀인이론(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생활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귀인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특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인양식(attribitional style)과 발생한 생활사건이 지니고 있는 전귀인정보(preattribitional information)이다. 전귀인정보(preattribitional information)는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그 원인에 대해 귀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Kelly, 1967). 전귀인정보에는 합의성(consensus), 독특성(distinctiveness), 일관성(consistency)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성(consensus)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이러한 사건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정

보를 의미하고 합의성이 낮다는 것은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독특성(distinctiveness)은 사건 자체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이한가에 대한 정보로서 사건의 특이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원인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일관성(consistency)은 사건이 자신에게 일관되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정보로서, 일관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자신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전귀인정보인지, 전귀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이영호, 원호택, 1990), 이러한 전귀인정보나 이에 대한 자각은 이후의 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합의성과 독특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다고 자각 할수록 개인은 사건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특성적인 변인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귀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우울과 관련이 되는 귀인양식은 보다 안정적이고 총체적이며, 전체 자기로 귀인한다는 점에서 수치심경향성의 귀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성향적인 특성으로 내부귀인을 하는 데에는 전귀인정보에서 낮은 합의성, 낮은 독특성, 높은 일관성과 관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Lewis(2003)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귀인을 하는 것은 수치심과, 구체적인 귀인을 하는 것은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Lewis의 견해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에 따라 부정적인 사건에서의 귀인이 달라진다면,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이나

인지적인 해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은 자기 반영적 정서로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기준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타인의 평가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귀인정보나 자각의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성과 독특성, 일관성을 ‘전귀인 태도(前歸因態度)’라고 명명하고, 개인의 수치심/죄책감경향성에 따라 부정적/긍정적 사건경험에서의 귀인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긍정적 사건 후에 수치심경향성은 죄책감경향성보다 긍정적 정서경험과 심리적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부정적 사건 후에 수치심경향성은 죄책감경향성보다 성향적 귀인(낮은 합의성, 낮은 독특성, 높은 일관성)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조사 대상

2006년도 2학기에 서울의 Y여고와 K남고, H고교의 남녀 고등학생 (1-3학년) 2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총 265명(남 95명, 여 170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피험자들은 제시된 부정적 사건상황(무능/위반)과 긍정적 사건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읽고 자신에게 일

어난 일이라고 상상하도록 유도되었다. 그리고 각 3가지 상황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전귀인 태도, 사건귀인양식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

자의식적 정서 척도

Tangney, Wagner 및 Gramzow(1989)에 의해 개발된 자의식적 척도-청소년 용(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Adol)을 사용하여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청소년용은 12개의 시나리오 안에서 수치심, 죄책감을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류설영(1998)이 청소년에게 맞는 상황으로 번안한 척도(TOSCA-Adol)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TOSCA-Adol의 신뢰도(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수치심의 신뢰도(Cronbach α)는 .70, 죄책감의 신뢰도(Cronbach α)는 .71로 나타났다.

부정적사건과 긍정적 사건의 조작

부정적인 사건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발되는 사건으로서 도덕과 무관한(nonmoral) 무능함이 노출되는 사건 상황(이하 “무능사건 상황”)과 도덕과 관련된(moral) 위반행위가 노출되는 사건 상황(이하 “위반사건 사건”)을 설정한 2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고, 긍정적인 사건 상황은 자신의 유능함이나 자긍심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부정적 사건 1 - 도덕무관 무능사건 상황>
수업시간에 다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제시된 후, 선생님께서 자신을 지목하였고 풀지

못한 상황제시

<부정적 사건 2-도덕관련 위반사건 상황>
시험시간에 마지막 주관식 답이 생각나지 않아 앞 친구의 답을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된 상황제시

<긍정적 사건 상황>

선생님께서 자신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을 반 친구들과 앞에서 밝히고,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제시

전귀인태도(前歸因態度)의 측정

전귀인태도는 Kelly(1967)의 귀인이론에 근거하여, 각 상황에 대한 합의성(consensus), 독특성(distinctiveness), 일관성(consistency)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합의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독특성은 “이 사건의 독특함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관성은 “나의 개인적 특성으로 이러한 일이 항상 일관성 있게 일어난다.”라는 맥락에서 각 상황마다 한 문항씩 문구를 작성하여 얼마나 이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0-100%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의 측정

부정적 정서의 측정은 Smith(2002)가 사용한 수치심관련 반응과 죄책감관련 반응, 기타 반응에 대한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형용사에 대해서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수치심관련 정서는 모두 12문항으로, 죄책감관련 정서 4문항, 적개심관련 정서 3문항, 불안관련 정서 5문항으로 모두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부정적 정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이은영(1991)이 제작한 정서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 즐거움과 평온함과 관련된 정서 문항 10문항을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정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만족 정도와 고통 정도

각 시나리오의 제시 후,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 정도와 만족감의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고통과 만족의 정도는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결 과

부정적/긍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개인의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정서적 반응 및 전귀인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간의 단순상관 관계를 <부록 3>과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상관이 .37($p < .01$)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준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죄책감경향성을 통제한 수치심경향성과 수치심경향성을 통제한 죄책감경향성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모두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고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는 단순상관관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긍정적인 사건 후에 수치심경향성을 통제한 죄책감경향성은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인 만족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단순상관관계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죄책감경향성을 통제한 수치심경향성은

표 4. 부정/긍정사건 후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정서적 반응과의 준부분상관계수(r)

	부정 정서	고통 정도	긍정 정서	만족 정도
수치심경향성	.41**	.30**	.02	.04
죄책감경향성	.22**	.25**	.14*	.22**

* $p < .05$, ** $p < .01$

주. 준부분상관계수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간의 상호상관을 배제한 것임.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만족정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적/긍정적 사건 경험에 따라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전귀인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들 간의 준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정적 사건 경험 후 수치심경향성은 합의성과 독특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일관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단순상관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적 사건경험 후에 수치심경향성은 죄책감경향성보다 성향적 귀인(낮은 합의성, 낮은 독특성, 높은 일관성)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즉,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 경험 후에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합의성이나 사건의 상황 때문으로 귀인하는 독특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내 자신의 개인적 특성 때문으로 돌리는 일관성에 있어서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부정적인 사건은 보다 개인의 성향으로 즉, 자신의 특성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 사건경험 후에 수치심경향성은 부정적 사건경험 후보다 성향적 귀인(낮은 합의성, 낮은 독특성, 높은 일관성)과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긍정적 사건 경험 후 수치심경향성은 합의성과 독특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일관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

표 5. 부정/긍정사건 후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전귀인태도의 준부분상관계수(r)

		합의성	독특성	일관성
부정 사건 경험 후	수치심경향성	-.15*	-.13*	.17**
	죄책감경향성	-.09	-.01	-.08
긍정 사건 경험 후	수치심경향성	.02	.03	-.17**
	죄책감경향성	.08	.15*	.13*

* $p < .05$, ** $p < .01$

주. 준부분상관계수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간의 상호상관을 배제한 것임.

건보다 성향적 귀인을 덜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해석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수치심경향성이나 죄책감경향성이 부정적 사건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건에서도 정서적 경험이나 전귀인 태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부정적 사건경험 후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모두 부정적인 정서나 심리적 고통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경험 후에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이나 만족감은 수치심경향성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죄책감경향성에서만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죄책감경향성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과 관련이 되는 반면, 수치심경향성은 부정적 사건경험 후에는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지지만, 긍정적 사건경험 후에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수치심경향성을 갖는 사람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향적 특성으로 귀인하지만,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향으로 돌리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수치심 및 죄책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의 수치심경향성이나 죄책감경향성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나 인지적인

종합논의

도덕적 정서로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우리 교육에서 꼭 다루어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바라볼 지를 고려하고 자신의 역할 행동이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타인의 규준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 행동이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동한다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거나 역기능적인 대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특히 발달상으로 청소년 시기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에 민감하며, 집단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또래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는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의식적 정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연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수치심을 경험하지만 이는 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창피함 정도(Similansky, 1992)인 반면,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전반적인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족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나 이혼에 대

해 창피하게 여김으로써 가식적으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함으로써 방어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거나 은폐된 분노, 우울, 슬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서를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박한샘, 2004). 이러한 현상은 수치심경향성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과 일반화하거나 긍정적인 경험도 충분히 정서적 체험을 하기 어려운 경향성을 갖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전체로서 귀인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귀인을 하거나 반성적인 사고를 해나갈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자원이 풍부한 내담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전체로 귀인하면서 압도되어 있거나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내담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과오가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합의를 자각하도록 도와주거나, 그러한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개인의 고통정도를 경감시켜주는 하나의 대처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보다 자신의 성향적 특성으로 귀인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긍정적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수

정되어 질 때 보다 나은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과 죄책감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진술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상적 시나리오 상황에서 반응을 측정하는 것은 심리과정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교한 실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1과 2의 대상연령이 차이가 있어 각 연령에 맞는 자의식적 척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의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귀인 태도, 심리적 고통과 만족 정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연구자가 제작, 번안하여 활용하였는데, 이는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화되고 신뢰도가 높은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 형용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김기범, 김양하 (2004). 자의식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와 심리적 기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8(3), 29-45.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

- 초점과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 문제.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11(1), 35-52.
- 박한샘 (2004).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령 (2002). 자기불일치와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 자기불일치 중요도와 자기기준 선호도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경향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중은 (1999).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 민경환(2002).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수치심과 죄책감).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11(1), 53-69.
- 유창열 (198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성취동기와 그에 관련되는 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7(1), 75-77.
- 이성식 (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 비행: 상징적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617-649.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8). 생활사건에 대한 합의성 지각 및 객관적 합의성 정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1), 57-68.
- 이영호, 원호택 (1990). 우울증과 인과귀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111-133.
- 이은영 (1991). 자기불일치 기제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공존현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정형수 (2003). 수치심의 지각정도에 따른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Alloy, L. B., & Metalsky, G. I. (1978).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Toward an adequate evaluation theories' validities. In L. B. Alloy (Ed.). *Cognitive process in depression*. NY: Guilford Press.
- Alexander, B., Brewin, & C. R., Vearnals, S., Wolff, G., & Leff, J. (1999). An investigation of shame and guilt in a depressed samp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2, 323-338.
- Andrews, B., & Hunter, E. (1997). Shame, early abuse, and course of depression in a clinical sample: a preliminary study. *Cognition and Emotion*, 11, 373-381.
- Atkinson, J. (1957).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 359-372.
- Baker, R. W., & Siryk, B. (1984).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arrett K. C. (1995). A functional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pp. 25-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lavier, D. C., & Glenn, E. (1995). The role of shame in perceptions of marital equity, intimacy and competenc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 73-82.
- Burness, E., Moore, M. D., Bernard, D., & Fine, M. D. (1990). *Psychoanalytic term and concepts*. New Haven & Lond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Yale University Press.
- Caver, C. W., & Genellen, R. J. (1983) Depression and components of self-punitiveness: High standard, self-criticism and overgeneraliz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30-337.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 405-419.
- Damon, W. (1988). *The moral child: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Einstein, D., & Lanning, K. (1998). Shame, guilt, ego development,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555-582.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50).
- Ferguson, T. J., & Crowley, S. L. (1997). Measure for measure: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guilt and sham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425-441.
- Freud, S. (1953). Three essays on theory of sexuality. In J. Strachey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7, pp.134-243).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 Harder, D. H. (1995). Shame and guilt assessment, and relationships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to psychopathology.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 Harder, D. H.,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6, (pp.89-114). Hillsdale, NJ: Erlbaum.
- Harter, S. (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J. Sut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 Hillsdale, NJ: Erlbaum.
- Hoblitzelle, W. (1982). *The measurement of shame and guilt and the role of shame in depression*, A Dissertation of Yale University.
- Hoblitzelle, W. (1987). Differentiating and measuring shame and guilt: the relation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In H. Lewis (Ed), *The role of shame and symptom formation*.

-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London: Routledge.
- Lester, D. (1998). The association of shame and guilt with suicida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535-536.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The Free Press.
- Lewis, M. (2003). The Role of the Self in Shame. *Social Research, 70*(4), 1181-1204.
- Lewis, M., Alessandri, S.,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 630-638.
- Merritt, P. (1997). Guilt and shame in recovering addic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5*, 46-49.
- Morrison, A. P. (1989). *Shame: The underside of narcissism*. Hillsdale: Analytic Press.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Rodin, J., Silberstein, L., & Striegel-Moore, R. (1985). Women and weight: A normative discontent. In T. B. Sondregger (Ed.), *Psychology and gende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4* (pp.267-30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nftner, J. L., &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 (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15-324.
- Similansky, S. (1992). Children of divorce. 오은순 역 (2002). *이혼가정아동*. 서울: 학지사.
- Smith, R. H., & Eyre, H. L. (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8-607.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 George Mason University.
- Watson, D., & Friends,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원 고 접 수 일 : 2007. 12. 18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 28
게 재 결 정 일 : 2008. 2. 1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by Psychological Traits

Soo Min Song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by identify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on adaptation-mechanism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on affective responses and cognitive interpretations in positive situations as well as in negative situ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guilt-proneness and adaptation was mediated by a reflective response styl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proneness and adaptation was mediated by a ruminative response style. In particular, shame-proneness was not found to be related with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affective response in positive situations. In negative situations, the participants who had higher shame-proneness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results to their personal traits than those who had higher guilt-proneness. This study extended the current body of knowledge on the essential property of two self-conscious concepts.

Key words :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self-focused response style (ruminative, reflective response style), adaptation.

부록 1. 수치심/죄책감경향성, 반응양식, 과일반화, 대학생활적응과의 단순상관계수(r)

	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		과일반화	대학생활 적응
		반추반응	반성반응		
수치심경향성	.24**	.49**	-.02	.49**	-.25**
죄책감경향성		.17**	.32**	.14*	.13*
반추반응			.18**	.77**	-.36**
반성반응				.11	.18**
전환반응				-.08	.10
과일반화					-.33**

* $p < .05$, ** $p < .01$

부록 2. 수치심/죄책감경향성, 성취동기, 사회불안과의 단순상관계수(r)

	성취동기	사회불안
수치심경향성	-.21*	.39**
죄책감경향성	.25*	.06

* $p < .05$, ** $p < .01$

부록 3. 부정/긍정 사건 후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정서적 반응의 단순상관계수(r)

	부정 정서	고통 정도	긍정 정서	만족 정도
수치심경향성	.48**	.37**	.07	.13*
죄책감경향성	.35**	.33**	.15*	.24**

* $p < .05$, ** $p < .01$

부록 4. 부정/긍정사건 후 수치심/죄책감경향성과 전귀인태도의 단순상관계수(r)

		합의성	독특성	일관성
부정 사건 경험 후	수치심경향성	-.19**	-.13*	.15*
	죄책감경향성	-.13*	-.04	-.01
긍정 사건 경험 후	수치심경향성	.04	.09	-.13*
	죄책감경향성	.09	.16**	.08

* $p < .05$, ** $p < .01$